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문수현	영문	MOON SOO HYUN
학과(전공)	컴퓨터공학과		학번	201**456
파견 학기	2017학년도 1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트루아공과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 입학 전부터 교환학생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대학생 때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대학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살아 보는 특별한 경험을 꼭 하고 싶었다. 3학년 까지 학과공부와 어학공부를 마무리 한 뒤, 4학년 1학기 파견으로 가고 싶었던 프랑스 트루아 공과대학교에 파견을 다녀오게 되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상대교에 여러 지원서들과 서류들을 트루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야 한다. 그 뒤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 발급에 30만원 정도가 들었다. 비자는 오래걸리는 편이라 최대한 일찍 신청하는게 좋다. 항공권 또한 제일 먼저 구입한게 항공권이였다. 파견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강, 종강 날을 확인한 후 항공권을 몇 달 전 구매했다.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또한 출국전 파견교 담당자를 통해 메일로 작성해 보낸다. 수강신청 및 기숙사는 추후에 변경이 가능함.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트루아공과대학은 프랑스 트루아(Troyes)라는 도시에 있는 국립대학이다. 학교 규모는 금오공대랑 비슷하거나 살짝 더 작은 느낌이 있었다. (기숙사가 교내, 교외에 있기 때문) 트루아는 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약간 구미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했고,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었다. 겨울엔 조금 더 추웠고 여름엔 조금 덜 더웠다. 5월까지 전기장판을 사용함. 특이점은 유럽 특성상 해가 정말 길었다. 주변 환경은 사실 열악했다. 트루아 시내 버스가 오후 8시~9시가 마지막차이기 때문에 일찍 움직이거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땐 기차를 타고 파리로 자주 갔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3월에 시작하는 봄학기 전에,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달짜리 겨울학기를 들었다. 프랑스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프랑스어수업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수업을 들었다. 계절학기라 매일 가야하는 수업이지만 3주?정도에 6학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듣는걸 추천함. 또한 프랑스어를 모르기 때문에 기초지만 미리 배우는건 도움이 되었다. 봄학기에는 전공2과목 교양2과목을 신청했는데, 수업이 프랑스어로 진행되어 들을 수가 없었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영어로 하는 수업은 주로 교환학생들이 신청을 해 수업은 크게 힘들지 않았다. 제일 재밌고 열심히 참가한 수업은 미술 수업이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 비는 한달에 300유로 정도가 나가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주택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넉넉잡아 200유로라고 보면된다. 기숙사는 교외,교내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나는 교내 기숙사에 살았는데 학교가 가까워서 좋았고, 1인실 이였으며 1인실,2인실 여부는 신청시에 정할 수 있다. 모든 방에는 취사가 가능하다. 한국의 자취방과 비슷함. 딱히 기숙사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UTT국제교류팀에서는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1:1 버디를 맺어주며, 특히 겨울학기 동안에는 여행, 체험 프로그램이 매주 있다. 교환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며, 초반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봄 학기 중에도 문제가 있을땐 국제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몇몇 행사가 있었던 것 같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부대시설 중 가장 좋았던 것은 한 학기에 20유로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다. 정말 많은 운동프로그램들이 일주일 내내 편성되어있다. 프랑스 학생들은 남녀누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나 또한 배드민턴과 암벽등반을 즐겨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짜여있는 시간대에 그냥 가서 배우거나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없는 암벽등반을 추천한다. UTT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암벽등반세트가 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문화적 차이를 느낀 일은 크게 없었고, 언어적 소통이 가장 문제인데 학교 내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조금씩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 밖으로 나가면 트루아 시내에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기본 프랑스어를 익혀야한다. 교내식당도 프랑스어를 써야함. 생활 프랑스어를 조금 미리 배워 가는 걸 추천한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을 포함해 거의 6개월을 한국을 떠나 있었다. 출국부터 입국까지 그 동안 모든걸 혼자서 겪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 다 지나고 나니 이제 이정도 쯤이야, 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나 자신이 조금 더 대범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또 프랑스 문화에 대해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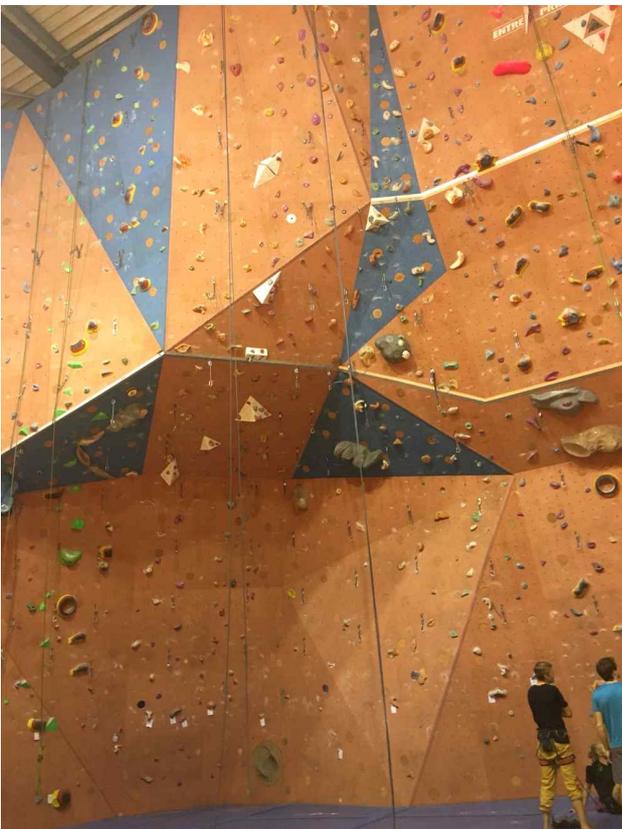
트루아 시내



교내카페테리아 샌드위치 (주식)



학교 모습



체육관 실내 암벽 등반장